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

임봉순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3-14 08:36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지사장 김학배)는 3월 13일 지사 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산시와 태안군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농지은행사업 담당자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며, 또한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2024년 1647 농가에 1025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이끌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선임대후매도사업, 공공임대사업, 농지매매지원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초기 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학배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는 "미래 우리나라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청년농업인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산=임봉순 기자 ibs9900@
